

2019년 광주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사업  
‘토요문화학교-주말예술배움터’  
심사 총평

지역 문화 배경과 전통 등을 소재로 한 공동체 문화의 복원과 현재 상황을 반영한 소통·가족문화의 활성화를 의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았다. 다만 지나치게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구체성이 모호한 계획은 감점요인이 되었다.

단순 기술전수 및 매뉴얼화된 교육방식보다는 창의적 발상유도와 균형 있는 참여방식을 제시하는 쪽을 우선하였다.

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19년 2월 27일

심사위원장

**[재]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**